

제3절 적요

조생종인 ‘썸머드림’과 ‘썸머킹’은 대체로 만개 후 약 99~102일에 수확이 가능하였다. ‘썸머드림’은 과중 230g으로 중과이며 과형지수가 0.76으로 작아 과형이 편원형이나 당도가 높고 산도가 낮아 식미는 우수한 품종이었다. ‘썸머킹’은 278g의 과중으로 중대과이며 과형이 원추형이며 당도 12.8°Bx, 산도 0.64%로 극조생종 품종으로는 당산미가 우수하였다. ‘썸머킹’의 상온 저장 일수별 과일 특성은 당도는 변화가 없으나 상온 5일 경 산도와 경도가 낮아지고 상온 10일경 산도 0.21%, 경도 3.9kg/11mmØ로 매우 낮아져 ‘썸머킹’의 상온 유통 가능 일수는 상온 5일~10일 경임을 알 수 있었다. 중생종 중 ‘아리수’는 ‘홍로’와 비슷한 성숙일수를 가지고 있지만 ‘홍로’의 135일에 비해 132일로 3일 정도 조숙되는 경향이였다. ‘아리수’는 322g의 과중으로 육성당시의 280g 보다 다소 컸으며 같은 시기에 수확되는 ‘홍로’와 유사하였다. 2016년의 기록적인 하계 고온으로 모든 사과 품종에서 고온피해가 발생하였다. ‘아리수’의 경우 수상 갈변, 과피황변의 증상이 있었다. 특히, 기온이 높은 군위 A농가의 과일은 대부분 분질화되고 과피황변이 심하였다. 그러나, 같은 지역의 군위 C농가의 과일은 매우 양호하였다. 이 차이는 두 농가의 수관하부 관리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온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수확하부 관리 형태가 전부 청경재배이며, 미발생 농가의 수관하부 관리 형태는 초생재배였다. 같은 농가에서 청경재배한 곳과 초생재배한 곳의 온도 비교는 청경재배한 곳의 주간부 온도가 30℃ 이상 유지 시간은 10시간이었지만, 초생재배한 곳은 9시간으로 1시간 짧았으며, 35℃ 이상 유지 시간은 청경재배한 곳이 2시간 22분 더 길었다. 아리수 품종의 수확 후 엽면시비를 9월 중순부터 1주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한 결과 전체 과일의 과중은 340.5g, 주당 착과수 74.8과, 환산수량 4.83ton으로 대과로 생산되어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황옥’은 만개 후 147일경 수확이 가능하였고 ‘피크닉’은 151일에 수확이 가능하였다. 발표된 ‘황옥’과 ‘피크닉’은 각각 239g과 245g으로 중과형 크기였다. 황옥 품종과 동일 시기에 출하되는 기존 사과(후지 조숙계)를 대상으로 외관 및 식미 선호도를 소비자를 조사한 결과는 황옥을 최종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